

기 관	컨슈머인사이트	이 메 일	sammy.park@consumerinsight.kr
문 의	박승표 상무	연 락 처	02) 6004-7661
배 포 일	2025년 10월 23일(목) 배포	매 수	총4매

Copyright © Consumer Insight. All rights reserved. 이 자료의 모든 콘텐츠(문서, 분석 내용, 도표 등)에 대한 저작권은 (주)컨슈머인사이트에 있으며, 언론사의 기사 작성 목적에 한하여 인용 또는 보도할 수 있습니다. 그 외 모든 형태의 복제, 배포, 게시, 전시, 전송, 2차적 활용 등은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. 무단 사용 시 저작권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.

■ 컨슈머인사이트 제4차 전기차 기획조사 리포트 ① 소비자 인식

소비자 4명 중 1명 “10년 후에도 전기차 안 산다”

- 작년 청라 화재로 급락했던 시장 '성장' 전망
- 올해 빠르게 회복해 70%로 '23년 수준 근접
- 구입의향 2년내 8%, 3~10년내 64% 달하지만
- 25%는 10년 후에도 전혀 구입할 생각 없어
- 구입 꺼리는 이유는 '안전성' 문제가 압도적

○ 작년 청라 아파트 화재사고 이후 급속히 냉각됐던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.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던 시장 '성장 전망' 비율이 10명 중 7명꼴로 회복해 '23년 수준에 근접했다. 그러나 4명 중 1명은 전기차 구입의향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으며, 그 이유로는 여전히 '안전성'에 대한 우려가 압도적으로 많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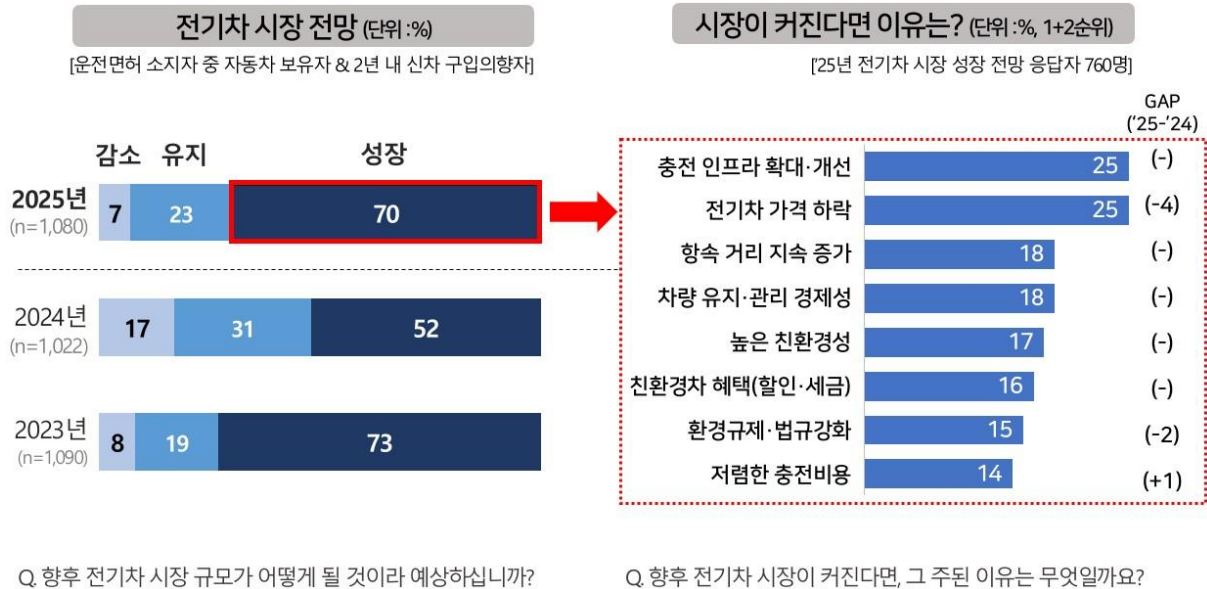
□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22년 시작한 '연례 전기차 기획조사(매년 8~9월 3000명 대상)'에서 소비자에게 전기차 시장 전망과 구입의향을 묻고 그 결과를 비교했다. 조사는 일반 소비자, 전기차 보유자, 전기차 구입의향자 각각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리포트는 일반 소비자(1080명)의 응답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. 일반(public) 소비자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자동차 보유자와 2년내 구입의향자를 지역별·성별로 할당 표집한 표본으로, 여기에는 전기차 보유자(35명)와 2년 내 구입의향자(90명)도 일부 포함돼 있다.

■ 유지·감소 전망, 각각 10%p·8%p 감소

○ 올해 조사에서 소비자 10명 중 7명(70%)은 향후 전기차 시장이 '성장'할 것으로 내다봤다[그림1]. '유지' 전망은 23%, '감소' 예상은 7%로 전년 대비 각각 8%p, 10%p 줄어

들어 '성장' 전망(+18%p)으로 이동했다.

[그림1] 소비자의 전기차 시장 전망과 성장 이유



○ 작년 소비자 전망이 급속 악화됐던 배경은 '23년 8월 1일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였다. 사고 직후 '전기 포비아(공포)'가 극에 달하면서 성장 전망이 52%까지 떨어졌으나 올해는 그 충격이 완화되고 시장 신뢰가 회복되는 추세다.

○ 성장을 전망한 소비자가 꼽은 이유로는 '충전 인프라 확대·개선'과 '전기차 가격 하락'이 각각 25%(1+2순위 복수응답)로 가장 많았다. 이어 '항속거리 지속 증가', '유지·관리 경제성', '친환경성' 등이 10% 후반대의 비중을 차지했다. 전기차의 고질적 문제인 충전·항속거리 개선과 가격 부담 완화 추세를 반영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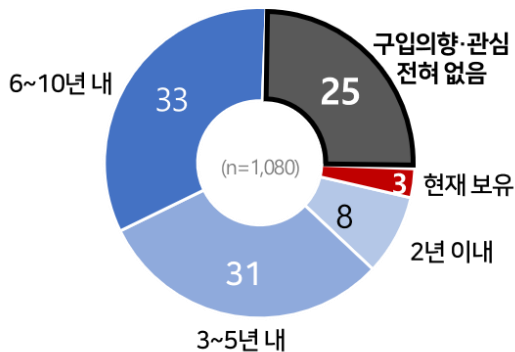
■ 2년 내 구입의향자 8%

○ 일반(Public) 응답자 중 현재 전기차를 보유한 사람은 3%였고, '2년 이내' 구입의향자는 8%로 나타났다[그림2]. '3~5년내'(31%), '6~10년내'(33%) 등 중장기적 구입 고려층도 두터웠다. 주목할 부분은 '10년 후에도 구입할 생각이 전혀 없다'는 응답이 25%에 달한 점이다. 이는 작년(33%)보다는 감소했지만, 전기차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쉽게 해소되지

않고 있음을 보여준다.

[그림2] 전기차 구입의향률과 비 구입의향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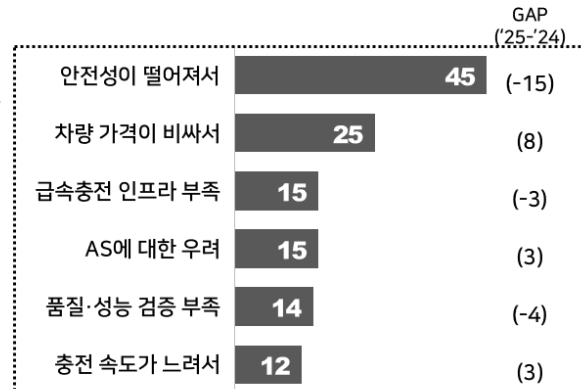
전기차 구입의향 (단위 :%)
[운전면허 소지자 중 자동차 보유자 & 2년 내 신차 구입의향자]



Q1. 현재 보유한 차종은 무엇입니까?
Q2. (전기차 미 보유자)향후 2년 내 전기차 구입 의향이 있습니까?
Q3. (2년 내 비 구입의향자) 그렇다면 좀 더 길게 고려해 보셨을 때, 전기차 구입 의향은 어떨 것 같습니까?

비 구입의향 이유 (단위 :%, 1+2순위)

[구입의향·관심 '전혀 없음' 응답자 265명]



Q. 향후(10년 내) 전기차 구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 / 1+2순위 응답

○ 구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'안전성이 떨어져서'(45%)가 제일 많았다. 작년 조사(60%)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그 다음 이유인 '차량 가격이 비싸서'(25%)의 2배에 가까웠다. '충전 인프라 부족', 'AS에 대한 우려', '성능 검증 부족' 등은 10%대로 비교적 낮았다.

○ 작년 전기차 화재 사고는 자동차 때문에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는 공포를 소비자에게 심어줬고 이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필요 이상으로 기피하는 심리를 갖게 했다. 시간이 흘러 충격은 가라앉고 올해 전기차 판매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다. 그럼에도 4명 중 1명이 여전히 전기차를 '전혀 고려하지 않는다'는 사실은 기술적 문제보다 안전에 대한 심리적 신뢰 기반이 여전히 충분치 않음을 시사한다. 소비자가 안전성을 '믿을 수 있는 수준'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전기차의 완전한 대중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.

이 조사결과는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 컨슈머인사이트가 2022년 시작한 '연례 전기차 기획조사'의 제4차 조사(2025년 8~9월 4,118명 대상 실시)로부터 나온 것입니다.

◆ 참고 : 「컨슈머인사이트」 '연례 전기차 기획조사' 개요 :

모집단 *	Public : 운전 면허 소지자 중 자동차 보유자 & 2년내 구입 의향자 EV : 전기차 주 운전자 및 2년 이내 구입 의향자
표본 추출의 틀	Consumer Insight, Invight Panel
표본 추출 방법	Public : 성별/지역별 할당 표집 EV : Consumer Insight 전기차 특화 패널 대상 타겟 모집
조사 방법	E-mail/Mobile Survey
분석 샘플 규모	Total 4,118명 (Public : 1,080명 / EV Intender : 1,809명* / EV Owner : 1,355명*)
조사 내용 *	Usage & Attitude & CEQ (Consumer Experienced Quality)
조사 기간	2025년 8월~9월

* Public에서 무작위로 수집된 EV Intender(35명)와 EV Owner(90명)도 포함한 사례수임

For-more-Information

박승표 상무	sammy.park@consumerinsight.kr	02)6004-7661
최현기 수석	choihk@consumerinsight.kr	02)6004-7614
양희성 부장	yanghs@consumerinsight.kr	02)6004-7677